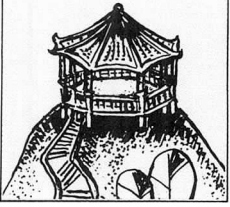


八角亭



“국립공원”의 주체

권 상 목

“국립공원”이란 흔히 우리가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즉,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즐길수 있도록 하기 위함ियो, 다르게 말해 자연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개발제한의 규제로 묶기도 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이란 관광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모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국립공원의 유치는 필연적인 것이 되기도 했으며 이제는 전국에 많은 국립공원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민이 갈망했던 국립공원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충족되지는 못했다. 국립공원의 명칭과 함께 가장먼저 찾아온 변화는 무엇인가? 입장료, 주차비 등이 생겨났고 통제관것도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것들이 공원을 아끼고 가꾸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국립공원의 부정적인 측면만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변화된 공원의 모습을 본다면 그 문제는 다를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국립공원의 유치와 관광개발을 외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립공원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

가 특별히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가 적은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관광을 선호하는 경향과 관광산업이 1.2차 산업과 달리 인력과 시간이 적게드는 효율적인 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때문이지 관광산업의 인기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도 개발제한이라는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연 훼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으나, 개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립공원은 그 지역민의 정서가 담겨있고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의 주체는 바로 그 지역의 주민인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느 행정기관의 탁상에서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정서나 희망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 관리공단 지역주민의 조화된 의식 속에서 정부의 균형있는 국립공원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주체가 되어 국립공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가꾸어 나가는 위대한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소백산남부지부장]